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비교 연구*

최 홍 국** · 平 林 進***

가치관은 인생을 통해 한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치관은 한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의 국민 의식이나 사회 행동의 원인은 파악하고 비교·분석하는데 유용한 구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지리적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 및 사회 의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에 비해 자기 지향적 가치관과 가족 지향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였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타인 지향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였다. 다시 말해, 가치관에 있어서 한국 대학생들은 「자기⇒가족⇒타인⇒사회」 순으로 중요시하는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자기⇒타인⇒가족⇒사회」 순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한국과 일본 국민간에 존재하는 질서 의식,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의 행동에서의 차이를 설명해 주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 들어가며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양국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방식이나 질서 행동과 같은 사회적 행동 양식은 두 나라 국민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국가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국민 의식이나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가치관을 대상으로 양국민을 비교한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가치관의 국가간 비교 연구는 본드(Bond, M. H., 1988), 슈와르츠와 빌스키(Schwartz, S. H., & Bilsky, W., 1990), 홉스테드(Hofstede, G., 1995) 등 주로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서구의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한

* 본 연구는 1998년도 교육부 학술 연구 조성비(동일 교육 특정 연구)의 지원에 의한 것임.

** DBM Korea 대표이사·정치심리학 박사

*** 平林進(스즈무 히라바야시): 일본名古屋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국과 일본은 지리적·역사적으로 근접해 있고, 같은 한자·유교 문화권이므로 양국민의 가치관은 비슷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는 양국민의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동양인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가치관, 사회 의식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견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의 질서의식만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인의 국민 의식이나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서구의 연구들을 참조하기보다는 양국민의 가치관을 직접 비교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관의 정의와 측정

가치관value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사상이나 대상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가치관에 관한 여러 연구들(Rokeach, 1973, 1979; Schwartz와 Bilsky, 1979)을 종합해 보면, 가치관이란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정의할 수 있다.

가치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관을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상태end-state of existence’인 목적적 가치관terminal value과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양식mode of conduct’인 도구적 가치관instrumental value으로 분류하고 있다(장동환·김교현, 1983; 김철민, 1996; Crosby and Gill, 1990; Lovejoy, 1951; Munson and McIntyre, 1977; Rokeach, 1968, 1973, 1979).

가치관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은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Rokeach, 1979).

이에 비해 태도는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가치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태도를 이용한다면, 태도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다양성에 비해 가치관은 어떤 하나의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으로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Rokeach, 1973).

또한 한 개인의 가치관은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Rokeach, 1968, Schwartz and Bilsky, 1987). 만약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하는 가치 갈등 *value conflict* 상황에 처한다면, 개인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위계성 때문에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가치관의 한·일 비교 연구

가치관이 태도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가치관이나 사회적 행동을 비교한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필요와 요구에 의해 일본과 일본인에 관한 문헌은 과거에 비해 더욱 많아졌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대표적인 일본 관련 문헌들로는 ‘축소 지향의 일본인’(이어령, 1986),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김용운, 1990), ‘일본은 있다’(서현섭, 1994), ‘일본 이야기’(김현구, 1996), ‘일본은 없다’(전여옥, 1997) 등이 있다.

김용운(1990)은 한국인은 효와 가문을 중시하고, 법이나 형식보다는 인정이나 감정을 중시하는 문화인 반면, 일본인은 공통의 신(神)을 섬기는 전통으로 인해 단합력이 강해 조직에 충성하는 경향이 높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문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인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규칙이나 법보다는 감정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구(1996)는 일본인은 집단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집단 내의 위계 질서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계 의식은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되어, 남편은 아내의 동반자이기보다는 아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집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본인은 집단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지메(いじめ)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화가 난 모습을 감추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은 모두 일본을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주의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서구 연구들로는 먼저 홉스테드(1995)의 가치관 비교 문화 연구가 있다. 홉스테드는 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개인이 집단에 의존하는 정도), 권력 거리(권위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불공평성 정도), 남성성 대 여성성(한 집단에서 여성적 목적에 반대되는 남성적 목적의 승인 정도), 불확실성 회피(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 등 4 가지 측면에서 비교 연구하였는데, 한국, 일본, 중국은 유교 문화권으로 집합주의와 권력 거리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남성성 대 여성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은 연구 대상 국가 중 남성성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이스라엘, 호주, 미국, 홍콩, 스페인, 핀란드 등 7개 국가의 가치관을 비교 연구한 쉬와르츠와 빌스키(1990), 미국, 중국, 홍콩의 가치관을 비교 분석한 랄스턴(Ralston, D. A.), 구스타프슨(Gustafson, D. J.), 엘사스(Elsass, P. M.), 청(Cheung, F.)과 텡스트라(Terpstra, R. H.)(1992), 20여개 국의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 연구한 쉬와르츠(1992)의 연구는 서구와 동양의 가치관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서구에서 제작한 가치관 척도를 동양의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 일본, 중국은 유교·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서구와 동양의 가치관의 차이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치관의 차이를 연구한 본드(1988)는 한국과 일본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대 문화적 고유성Cultural inwardness'- 타인에 대한 인내, 조화, 자비 등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간의 차별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 '사회적 평판Reputation 대 사회적 도덕성Social morality'- 재산, 체면, 호혜성의 원칙 등 사회적 책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 등 두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적 고유성보다는 사회적 통합의 경향이 높은데, 한국보다는 일본이 타인에 대한 인내, 조화, 자비 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통합 경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과 일본은 사회적 도덕성보다는 체면이나 재산 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평판 경향이 연구 대상 서구 국가들에 비해 더 높았는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사회적 평판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¹⁾가 모든 사회, 산업, 경제,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후쿠야마(Fukuyama, 1996)는 한국은 고도의 가족주의 사회여서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혈연 이외의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인 결사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하였다.

반면, 그는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고도의 가족 중심 사회가 아닌 비친족 공동체이므로,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고신뢰 사회로 규정하였다. 고신뢰 사회는 공동의 이익을 중요시하므로 강력한 자발적 사회성을 지닌다고 하였다.²⁾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는 한국은 효를 중시하는 사회, 일본은 충을 중시하는 사회로 규정하면서 한국에서는 정치적 권위가 가정을 지배할 수는 없으나, 일본에서는 정치적 권위가 가정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드(1988)와 후쿠야마(1996)의 이러한 견해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치관이나 정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국내 학자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논리적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국내의 연구들과 후쿠야마의 견해는 한국과 일본인의 가치관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직·간접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실증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연구는 내용의 정확성이나 우수함에 관련없이, 자칫 주과전 견해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인들의 정서, 가치관 등의 차이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선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가치 항목의 추출 및 분류

본 연구는 개인의 행동에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가치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시말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치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고유한 가치관은 무엇이며, 또 한국인들에게 부족한 측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 신뢰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말함.

2) 후쿠야마(1996)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를 고도의 가족주의 사회(저신뢰 사회)로, 일본과 독일을 고신뢰 사회로 규정하였음.

먼저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가치관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치관 척도를 제작하였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항목들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K대, H대, D여대 등 3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유 응답 형식으로 사전 조사(pilot study)를 하였다.

개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 항목(자기 지향적 가치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 항목(타인 지향적 가치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 항목(사회 지향적 가치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3개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 지향적 가치관 *self-oriented values*, 타인 지향적 가치관 *other-oriented values*, 사회 지향적 가치관 *society-oriented values*에 해당하는 87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얻은 87개 가치 항목들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자유 응답 형식으로 얻었기 때문에 개별 가치 항목들의 대등한 비교를 위해선 각 가치 항목들의 추상성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김철민, 1996). 추상성 수준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인 개념을 지닌 하나의 가치 항목들이 여러 가치 항목들을 포함하여 가치 항목들간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비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가치 항목은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건강, 가정의 평안, 경제적 풍요 등 여러 가지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가치 항목들의 개별적인 비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추상성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서울의 D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사 실무 전문가 10명에게 각 가치 항목들의 추상성 수준을 검토하게 하여, 추상성 수준이 극단적인 가치 항목들을 수정하거나 가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가치 항목들의 수정은 가능하면 원자료인 언어 보고 *verbal protocol*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가치 항목들 중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동일한 개념을 중복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가치 항목들은 빈도를 기준으로 빈도가 높은 가치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87개의 가치 항목들에 대한 추상성 수준과 동일성 정도를 검증한 후, 최종적

으로 24개의 가치관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추출한 24개 항목을 로키치(Rokeach, M., 1973)의 가치관 분류에 따라 목적적 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 각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치관은 아동의 인지 발달 *cognitive development* 과정을 통해 분화·발전해 가는 구성개념이다. 한 개인은 성장하면서 그가 속해있는 가정이나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회화 *socialization* 과정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개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가정, 타인, 사회 등 각 지향 대상들과의 통합, 유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 항목들을 학습하여, 가치관 또는 여러 가치 항목들의 총합인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은 그 지향 대상에 따라 크게 자기, 가정, 타인, 사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4개 가치 항목들은 연구자와 연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K대 대학원생 3명이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하여, 지향 대상별로 가치관을 자기 지향적 가치관, 가족 지향적 가치관, 타인 지향적 가치관, 사회 지향적 가치관으로 분류하였다. 가치관의 분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가치관 항목과 가치관의 분류

가치영역 지향대상		목적적 가치관	도구적 가치관
자기 지향적 가치관	자기	·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 · 자아실현, 자기성취	· 긍정적 사고 · 소신있는 생활(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 ·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 책임완수, 자기 소임에 충실함
	가족	· 가정의 화목 · 부모에 대한 효	—
타인 지향적 가치관	타인	·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이나 존경을 받음 · 이성과의 사랑 ·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이해 · 서로 도움. 상부상조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 기본적인 예의를 지킴
사회 지향적 가치관	사회	·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체 의식 ·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 나라에 충성, 애국심 · 사회에 봉사, 사회에 기여 · 약속, 질서, 법을 지킴

2. 본 조사

사전 조사에서 추출한 24개 가치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 각 400명씩 모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은 서울지역의 K1대, K2대, D대, D여대 등 4개 대학 400명의 학생들을, 일본은 T대와 N여대 등 2개 대학 4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국가별·성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 국가별·성별 조사 대상자의 수(비율)

	한 국	일 본	전 체
남 자	210 (52.5)	217 (54.3)	427 (53.4)
여 자	190 (47.5)	183 (45.7)	373 (46.6)
전 체	400	400	800 (1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목적적 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 각 2개 영역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항목 5개를 고르도록 하는 순위 평가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치 영역별 18개 가치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중요도 순위를 평가하는 로키치(1968)의 가치관 중요도 평가 방법은 18개 가치 항목들의 순위를 모두 비교해야 하는 응답의 어려움으로 인해 순위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2개 가치 항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의 가치 항목만을 고르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가치관 연구 결과

1) 목적적 가치관의 연구 결과

개인의 가치관 중에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물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적 가치관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중요도 평가 결과와 순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 한·일 대학생의 목적적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 평가 비율과 순위

중요도 순위	한 국 (n=400명)	일 본 (n=400명)
1위	·자아 실현, 자기 성취 82.2	·자아 실현, 자기 성취 76.0
2위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 69.0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 73.1
3위	·가정의 화목 62.0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69.7
4위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 46.0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 62.0
5위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44.8	·가정의 화목 51.9
5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44.8	·이성과의 사랑 51.4
7위	·이성과의 사랑 44.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34.1
8위	·부모에 대한 효 34.7	·부모에 대한 효 30.3
9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존경을 받음 33.1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존경을 받음 27.4
10위	·사회적 지위나 명예 16.3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체 의식..... 10.6
11위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체 의식 12.3	·사회적 지위나 명예 9.6
12위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10.4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3.8

* 각 항목의 비율(%)은 중요도 순위 평가에서 상위 5개 항목으로 언급한 비율임.

먼저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목적적 가치관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의 전체적인 순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한국 대학생의 82.2%는 ‘자아 실현, 자기 성취’를 가장 중요한 5개 가치 항목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69%), ‘가정의 화목’(62%),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46%),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44.8%),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44.8%), ‘이성과의 사랑’(44.2%) 순이었다.

일본 대학생의 경우에도 ‘자아실현, 자기 성취’(76%)를 가장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평가했으나, 그 다음은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73.1%),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69.7%),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62%), ‘가정의 화목’(51.9%), ‘이성과의 사랑’(51.4%) 순이어서 한국 대학생들과 중요도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양국 대학생들은 모두 ‘자아 실현, 자기 성취’를 가장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아 실현, 자기 성취’는 매슬로우(Maslow, A.)의 욕구 위계 *hierarchy of needs*에서도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자아 실현이나 자기 성취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의 가치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한·일 대학생 모두 ‘사회적 지위나 명예’,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체 의

식',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등의 중요도는 다른 가치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가치관의 지향 대상별 목적적 가치관 12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의 비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개별 가치 항목별 한·일 대학생의 중요도 평가 비율을 피어슨(Pearson)의 χ^2 검증을 하였다. 개별 가치 항목들의 중요도 평가 비율과 비율의 χ^2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지향 대상별 중요도 평가 비율의 χ^2 검증 결과

가치관 지향대상	가치 항목	국 가		χ^2 검증 결과		
		한국 (n=400명)	일본 (n=400명)	χ^2 값	df	P
자기	·자아실현, 자기성취	82.2	76.0	2.758	1	n.s.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	69.0	62.0	2.957	1	n.s.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44.8	34.1	5.971	1	.015*
가족	·가정의 화목	62.0	51.9	5.256	1	.022*
	·부모에 대한 효	34.7	30.3	1.151	1	n.s.
타인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	46.0	73.1	37.437	1	.001**
	·주변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	44.8	69.7	31.815	1	.001**
	·이성과의 사랑	44.2	51.4	2.591	1	n.s.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존경을 받음	33.1	27.4	2.015	1	n.s.
사회	·사회적 지위나 명예	16.3	9.6	4.806	1	.028*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체 의식	12.3	10.6	.370	1	n.s.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10.4	3.8	7.646	1	.006**

n. s.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not significant).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목적적 가치관 중 자기 지향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3개 가치 항목의 중요도 평가의 비율을 한국과 일본 대학생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먼저 중요도 평가에서 12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나타난 '자아 실현, 자기 성취'와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 등 2개 항목의 중요도 평가의 비율은 한국과 일본 대학생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은 한국 대학생의 44.8%, 일본 대학생은 34.1%가 가장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chi^2 = 5.971$, $P < .05$), 물질주의적 측면은 한국 대학생이 더욱 중요시하였다.

또한 가족 지향적 가치관 2개 항목의 경우, '가정의 화목'은 한국 대학생의 62%, 일본 대학생의 51.9%가 중요 가치 항목으로 생각했고, 양국 학생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5.256$, $P<.05$).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에서는 양국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타인 지향적 가치관 4개 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항목들로 평가했는데,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46%, 일본 학생들은 73.1%가 중요 가치 항목으로 생각했고, 이러한 차이는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chi^2=37.437$, $P<.01$), 친구나 동년배와의 우정은 한국보다는 일본 대학생들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주변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의 경우도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chi^2=31.815$, $P<.01$). 이것은 한국 대학생에 비해 일본 대학생이 '타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성과의 사랑'은 일본 대학생이 다소 중요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가치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던 사회 지향적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나 명예'는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항목이었고($\chi^2=4.806$, $P<.05$),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한국 학생들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chi^2=7.646$, $P<.01$). 이러한 결과는 본드(1988)의 결과와 같이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에 비해 사회적 명예나 체면 등의 사회적 평판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목적적 가치관 중 가장 중요한 가치 항목은 한·일 대학생 모두 '자아실현, 자기성취'이며, 그 다음은 한국 대학생은 직업, 가정의 화목 등 자기나 가족 지향적 가치 항목들을 중요시한 반면, 일본 대학생은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 등 타인 지향적 가치 항목들을 더 중요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자기 지향적 가치관과 가족 지향적 가치관은 일본 대학생보다 한국 대학생들이 더욱 중요시했으며, 타인 지향적 가치관은 일본 대학생이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개 가치 영역 중에서 사회 지향적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은 「자기⇒가족⇒타인⇒사회」 순으로 분화되며, 일본 대학생은 「자기⇒타인⇒가족⇒사회」 순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 도구적 가치관의 연구 결과

개인의 가치관 중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삶의 생활 방식과 관련한 가치 항목인 도구적 가치관의 중요도 순위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평가 결과와 순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한·일 대학생의 도구적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 평가 비율과 순위

중요도 순위	한 국 (n=400명)	일 본 (n=400명)
1위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 78.5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이해 76.0
2위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 77.3	·서로 도움, 상부상조..... 60.6
3위	·긍정적인 사고..... 72.7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 51.9
4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이해 60.4	·약속, 질서, 법을 지킴..... 50.0
5위	·책임완수, 자기 소임에 충실함..... 54.3	·기본적인 예의를 지킴..... 48.6
6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 33.7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46.6
7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킴..... 31.9	·책임완수, 자기 소임에 충실함..... 43.3
8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28.5	·긍정적인 사고..... 38.5
9위	·사회에 봉사, 사회에 기여..... 23.3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 35.6
10위	·약속, 질서, 법을 지킴..... 22.4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 30.3
11위	·서로 도움, 상부상조 12.0	·사회에 봉사, 사회에 기여..... 15.9
12위	·나라에 충성, 애국심..... 4.6	·나라에 충성, 애국심..... 2.9

* 각 항목의 비율(%)은 중요도 순위 평가에서 상위 5개 항목으로 언급한 비율임.

도구적 가치관 12개 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한국 대학생의 78.5%는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5개 가치 항목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77.3%), ‘긍정적인 사고’(72.7%),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이해’(60.4%), ‘책임 완수, 자기 소임에 충실함’(54.3%),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33.7%) 순이었다.

반면,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이해’를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평가한 비율이 76%로 12개 가치 항목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서로 도움, 상부상조’(60.6%),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51.9%), ‘약속, 질서, 법을 지킴’(50%), ‘기본적인 예의를 지킴’(48.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국 대학생들의 중요도 평가의 순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치관의 지향 대상별로 도구적 가치 항목 각각에 대한 양국 대학생의 중요도 평가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 가치 항목별 비율을 피어슨의 χ^2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지향 대상별 중요도 평가 비율의 χ^2 검증 결과

가치관 지향 대상	가치 항목	국 가		χ^2 검증 결과		
		한국 (n=400명)	일본 (n=400명)	χ^2 값	df	P
자기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	78.5	51.9	41.122	1	.001**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	77.3	35.6	92.957	1	.001**
	·긍정적인 사고	72.7	38.5	60.518	1	.001**
	·책임완수, 자기 소임에 충실함	54.3	43.3	6.172	1	.013*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33.7	30.3	.692	1	n.s.
타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이해	60.4	76.0	13.754	1	.001**
	·기본적인 예의를 지킴	31.9	48.6	14.889	1	.001**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28.5	46.6	18.161	1	.001**
	·서로 도움, 상부상조	12.0	60.6	140.545	1	.001**
사회	·사회에 봉사, 사회에 기여	23.3	15.9	4.806	1	.028*
	·약속, 질서, 법을 지킴	22.4	50.0	43.674	1	.001**
	·나라에 충성, 애국심	4.6	2.9	1.004	1	n.s.

n. s.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not significant).

*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 **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먼저 자기 지향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5개 가치 항목의 중요도 평가 비율의 한·일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자기 지향적 가치관은 일본 대학생보다는 한국 대학생들이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목적적 가치관의 결과(표 4 참조)와 비슷하였다.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의 경우, 한국 대학생의 78.5%, 일본 대학생의 51.9%가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41.122$, $p<.001$). 또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도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생각했다($\chi^2=92.957$, $p<.001$). 이것은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자신

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자기 중심적 측면은 한국 대학생이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 ‘책임완수, 자기 소임에 충실함’ 등의 가치 항목도 한국 대학생이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관의 자기 지향적 가치관의 이러한 결과는 목적적 가치관의 지향 대상별 중요도 차이 분석 결과(표 4 참조)와 마찬가지로 일본 대학생보다는 한국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자기와 관련한 가치관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도구적 가치관 중 주로 타인과 관련이 깊은 가치 항목인 타인 지향적 가치관 4개 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 이해’의 경우 일본 대학생의 76.0%, 한국 대학생의 60.4%가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차이를 χ^2 검증 한 결과,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chi^2=13.754$, $p<.001$),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일본 대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킴’의 경우도 일본 대학생이(48.6%), 한국 대학생(31.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평가해($\chi^2=14.889$, $p<.001$), 타인에 대한 예절과 예의를 지키는 가치 항목은 일본 대학생이 더욱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서로 도움, 상부상조’도 한국 대학생보다 일본 대학생들이 더욱 중요시하는 가치 항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학생보다는 일본 학생들이 타인과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 항목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나아가 한국 학생보다는 일본 학생들이 타인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한국 대학생과는 달리, 타인 지향적 가치관 항목들을 자기 지향적 가치관 항목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평가해, 일본 대학생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보다는 타인중심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 지향적 가치관 3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회에 봉사, 사회에 기여’는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평가했고($\chi^2=4.806$, $p<.05$), ‘약속, 질서, 법을 지킴’ 등은 일본 대학생이 더욱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평가했다($\chi^2=43.674$, $p<.001$).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은 일본 대학생들보다 인정주의적이며, 일본 대학생은 사회 체제나 규범에 보다 순응적임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목적적 가치관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생은 자기 지향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이나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과 같이 타인의 기대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한 생활 방식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반면, 일본 대학생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보다는 타인을 생각하고, 서로 돕고, 예의를 지키는 타인 중심적이고, 사회의 체제나 규범에 순응하는 생활 방식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치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가치관을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물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적 가치관'과 삶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도구적 가치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가치 영역은 가치관의 지향 대상에 따라 자기, 가족, 타인, 사회 지향적 가치관으로 분류하고, 각 가치 영역별 가치 항목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중요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목적적 가치관의 연구 결과, 한·일 대학생들은 모두 '자아 실현, 자기 성취'를 가장 중요한 가치 항목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외 가치 항목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 대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 '가정의 화목' 등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일본 대학생은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12개 가치 항목들을 χ^2 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생은 자기나 가족 지향적 가치관을 일본 대학생보다 더 중요시했으며, 일본 대학생은 타인 지향적 가치관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관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에 비해 더욱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 대학생은 일본 대학생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과 같은 물질주의적 측면들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도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한·일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대학생은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 '긍정적인 사고' 등 자기 지향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일본 대학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 이해', '서로 도움, 상부 상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등 타인 지향

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소신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 등의 자기 지향적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도 목적적 가치관의 중요도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들에 비해 일본 학생들이 자기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과 권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가치관의 두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차이를 비교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은 「자기⇒가족⇒타인⇒사회」 순으로, 일본 대학생은 「자기⇒타인⇒가족⇒사회」 순으로 분화·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삶의 생활 방식인 도구적 가치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은 가족의 안전, 성취감, 우정 등 개인이나 소집단과 관련된 가치를 중시한다는 이훈구(1987)나 이광규(1994)의 지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치관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대로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 대학생보다는 일본 대학생들이 타인이나 나아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해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고, 한국 대학생들은 타인이나 사회보다는 자기나 가족의 이익을 우선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야마(1996)는 가족간의 강한 유대감은 가족 이외의 집단에는 강한 적대감을 낳아, 가족 이외의 집단에는 당연히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므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질서나 공동체 의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가족 중심주의는 질서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 형성에 저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높은 가족 중심적 가치관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일본인들은 높은 질서 의식을 보이고,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효 사상, 자녀 사랑, 형제자매간의 우애, 연장자에 대한 공경, 학교나 직장에서의 선배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며, 후배에게는 따뜻한 배려를 하는 마음과 행동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전통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때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는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간의 차별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연, 지연에 의한 차별이 학교, 직장, 연고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잔존하여 구성원들의 단합과 협동을 저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빠른 경제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선진화·국제화되었지만, 가치관이나 사회 의식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특성을 많이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 속도간의 불균형은 가치 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연공 서열에 의하지 않는 인사 정책, 정리 해고나 변형 근로제 등은 서구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급속하게 변한 경제 상황과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전통 가치관간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 덕목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 덕목은 당연히 자신의 가족이나 지역 사회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기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타인 또는 사회 지향적 가치관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애착을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확장하고 승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비교한 실증적인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일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과 일본의 비교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인들의 가치관 비교 분석을 통해 일본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양국의 이해와 협력 관계를 위해 본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제언점을 몇가지 말하면, 먼저 가치관을 목적적 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가치관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 가치관을 두 가지로 분류했으나, 이러한 분류의 타당성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가치관을 연구하기 위해 가치관 항목을 추출한 사전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중요시되어 추출된 가치 항목들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수와 연구 대상 지역의 제한도 연구의 한계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치관의 점진적 변화 형태에 대한 중단적 연구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비인적 요인을 밝혀 가치관의 교육 장면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운 편저(1990).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 서울: 한길사.
- 김철민(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 행동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구 편저(1996). 일본 이야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서현섭 편저(1994). 일본은 있다. 서울: 고려원.
- 이광규(1994).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 10-17.
- 이어령 편저(1986). 축소 지향의 일본인. 서울: 기린원.
- 이훈구(1987).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과 정치-교차문화적 분석-. 사회심리학연구, 제3권 제2호, pp. 25-43.
- 장동환, 김교현(1983). 신입생의 가치관 조사.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편, 학생지도 연구, 제5권, pp. 3-32.
- 전여옥 편저(1997). 일본은 없다. 서울: 푸른숲.
- Bond, M. H.(1988). Finding universal dimensions of individual variation in multicultural studies of values : The Rokeach and Chinese value surve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pp. 1009-1015.
- Crosby, L. A., Bitner, M. J., and Gill, J. D.(1990). Organizational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20, pp. 123-134.
- Fukuyama, F. 편저. 구승희 역(1996). 트러스트(Trust),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Hofstede, G. 편저. 차재호, 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Lovejoy, A. O.(1951). Terminal and adjectival values. *Journal of Philosophy*, Vol. 47, pp. 593-608.
- Munson, J. M., and McIntyre, S. H.(1977). Personal values: a cross cultural assessment of self values and values attributed to a distant cultural stereotyp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5, pp. 160-165.
- Ralston, D. A., Gustafson, D. J., Elsass, P. M., Cheung, F., and Terpstra, R. H.(1992). Eastern values: a comparison of managers in the United States, Hong Kong,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7 No. 5, pp. 654-671.
- Rokeach, M.(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okeach, M.(1979). Some unresolved issues in theories of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25, pp. 261-304.
- Schwartz, S. H.(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Schwartz, S. H., and Bilsky, W.(1987). Toward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pp. 550-562.

Schwartz, S. H., and Bilsky, W.(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5*, pp. 878-89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Values

Choi, Hong-Guk* · Susumu Hirabayashi**

The valu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dividual's attitude and social behavior through one's life, and the value system is the useful construct that explains the reason of the individual's behavior. To find the reason of difference in social behavi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e have compared the values of the Japanese and Korean college students. In the past,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have divide the values into two domains; instrument values as the ways of life which represent how to live, and terminal values as goal states which represent what to be. Each domain was divided into four subdimensions - self, family, other and society-oriented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lead to three conclusions: first, the value and social behavior between Koreans and the Japanese college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second, Korean students gave more importance to the self and family-oriented values, but Japanese did other-oriented values. The third, the difference of value importance was the main reason for there being a difference of observing public ord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Korean and Japanese values are different. And we feel that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educational purposes.

* DBM Korea

** Department of Psychology, Nagoya Women's University, Japan